

UN 베삭절, 5월 28~30일 태국서 열려

80개국 불교 지도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성도·열반을 동시에 기념하는 날인 상좌부 불교의 '베삭(vesak)'을 기념하기 위해 태국에 모였다.

'Buddhist Channel' 지는 1일 "지난달 28~30일 태국 방콕 유엔컨벤션센터에서 80개국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교와 세계 위기'를 주제로 '제12회 유엔 베삭절(United Nations Day of Vesak)'을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선 키온(Damien Keown·영국) 교수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탄생·성도·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계 불교계는 '헌신'과 '결단'으로 동시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베삭절이 처음 천명된 것은 1998년 콜롬보 국제불교회의(International Buddhist Conference) 때다. 당시 상좌부 불교계를 중심으로 베삭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공유하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등의 불교계가 자국의 유엔 대표의 도움을 받아 1999년 12월 15일 개최된 '제54회 유엔 총회'의 의제로 '유엔 베삭절 제정'을 채택하고, 34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000년 5월 유엔 본부에서 34개국 불교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엔 베삭절 제정 기념식'을 봉행했다. 그리고 2005년 5월에는 유엔이 아닌 세계 불교계가 주축이 되어 '제1회 유엔 베삭절'을 개최할 수 있었다.



5월 28~30일 태국 방콕 유엔컨벤션센터에서 80개국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교와 세계 위기'를 주제로 '제12회 유엔 베삭절(United Nations Day of Vesak)'이 개최됐다.

'불교와 세계 위기' 주제로 ... 80개국 4,000여 명 참석 D. 키온 교수, "불교계, 헌신과 결단으로 동시대 모범이 되어야" 스웨덴 불교연합의 '증오 거부 캠페인'에 관심 집중

"베삭은 상좌부 불교전통에 따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성도·열반을 동시에 기념하는 날"이라고 설명한 담마라타나(Dhammaratana·프랑스) 스님은 "인류의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와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다짐의 축제"라며 "따라서 베삭의 정신이란 '우리가 이 세상의 안정을 위해 실천한다'는 서원 그 자체"라고 말했다. "올해 유엔 베삭절은 '환경을 보존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동시대의 화두'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밝힌 필립 스탠리(Philip Stanley·미국) 박

사는 "교육, 환경, 인권, 문화, 건강 등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었다"며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세계 불교계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말했다. 이번 유엔 베삭절에는 위기에 처한 세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 변혁' '위기 극복' '환경 보호' '건강한 삶' '불교 교육' 등 5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키퍼너스가 마하찰라롱코르나라비디야라야(Mahachulalongkornrajavidyalaya)대학에서 마련됐다.

'Buddhist Channel' 지는 "이번 키퍼

너스 52개 논문 가운데 스웨덴 불교연합의 예카테리나 파노바(Ekaterina Panova)위원의 발제에 관심이 모아졌다"며 "예카테리나 의원은 발제에서 스웨덴 불교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증오 거부(Refuse to Hate) 캠페인'을 소개했다"고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불교를 비롯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스웨덴 주류 종교계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증오 거부 캠페인'이 다종교 사회의 스웨덴에서 사회적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예카테리나 의원은 발제에서 "증오 거부 캠페인은 다종교 사회에서 자칫 터지기 쉬운 종교 갈등의 문제를 '사랑'과 '이해'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며 "이를 통해 스웨덴 사회가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보편적 윤리관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대표로 '제12회 유엔 베삭절'에 참석한 진철 스님(동국대 교수)은 키퍼너스에서 '환경 보호' 분과에 참여,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선 수행자의 생활방식'으로부터 생태환경보전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Buddhist Channel' 지는 "올해로 12회를 맞은 '유엔 베삭절'은 산하 기관인 '유엔 베삭절 국제위원회(ICDV)'가 2013년 7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 받을 만큼 성장했다"며 "이는 불교계가 세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프랑스 파리에 유럽 최대 불상 나투셨다

높이 10m 금불상 뱅센 숲 그랜드 파고다에 봉안



프랑스 파리의 유명 산책가 있는 뱅센 숲의 그랜드 파고다에 봉안된 높이 10미터의 금불상. 호안 미로 아틀리에에서 제작된 이 불상은 유럽 최대 규모의 불상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파리에 유럽 최대 금불상이 봉안됐다. 'Guardian' 지는 지난 2일 "파리 외곽 뱅센 숲(Bois de Vincennes)의 그랜드 파고다(Grande Pagode)에 높이 10미터 금불상이 봉안됐다"며 "프랑스 불교계의 서원이 담긴 이 불상은 유럽 화단 이끌었던 호안 미로(Joan Mir)의 파리 아틀리에에서 제작되어 의미를 더했다"고 보도했다.

도메닐 후수(Lac Daumesnil)를 끼고 있는 뱅센 숲은 파리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책 코스 중의 하나로, 이곳에서는 지난 1931년 '국제 식민지 전(展)'이 개최됐다.

이번에 금불상이 봉안된 '그랜드 파고다'는 '국제 식민지 전(展)'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카메룬의 전통 가옥을 3배 크기로 지어, 전시됐던 목조 건물이다.

카메룬의 전통 가옥은 전시회 이후 다른 설치물과는 달리 철거되지 않고 관리되어 왔는데, 2년 전 프랑스불교연합(French Buddhist Union)이 사용 허가를 받고, 기금을 조성해 리모델링 과정을 밟아 지난달 24일 '그랜드 파고다'로 새롭게 개원했다.

"카메룬 전통 가옥의 개축에는 약 1,000,000 유로(약 12억 3천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기금 모두 종파를 떠나 프랑스 불교계의 힘으로 조성됐다"고 말한 프랑스 불교연합 Liliane Lefait 운영위

원은 "그랜드 파고다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것"이라며 "예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곳을 방문한 모든 이들이 평온을 찾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랜드 파고다의 높이는 20미터에 달하지만 울창한 뱅센 숲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한 Liliane Lefait 운영위원은 "이는 그랜드 파고다가 불교 수행과 수행의 최적의 공간이게 한다"며 "프랑스 불교계가 그랜드 파고다와 그 안에 봉안된 금불상의 원력으로 진일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안 미로 아틀리에에서 제작 프랑스 불교연합 12억 원 조성 일반 대중에 개방할 것

프랑스 불교연합은 1960년대 베트남을 비롯해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각각 결성해 운영했던 7개 불교단체를 하나로 묶어 출범시킨 프랑스 대표적 불교 공동체이다. 한편 'Guardian' 지는 "불상이 제작된 '호안 미로' 아틀리에에서 지난 1983년 타계한 스페인 최고의 화가인 '호안 미로'의 작품을 이어가기 위해 개원된 곳으로, 유럽 최고의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예술 공간"이라며 "그랜드 파고다에 봉안된 불상이 이곳에서 제작된 것도 큰 의미"라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인도, 훼손 위기 '타보 사원' 구하라

기후변화·건설개발 등으로 11C 불교유적 파괴 위험

인도 북서부 히마찰프라데시 주정부가 타보(Tabo)마을에 있는 불교유산 훼손을 막기 위해 끝머리를 앓고 있다.

인도 일간지 힌두스탄타임즈는 5월 30일 "히말라야 아잔타 지방 11세기 불교유적 타보사원이 기후변화로 훼손위기에 놓여있다"며 "정부가 각국의 노력을 취하고 있지만 기후·지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보사원은 고지대 사막지역 라홀과 스피티 지역의 골짜기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9개의 법당, 4개 사리탑, 동굴 성지 등으로 구성된 거대 불교 유적지다. 최근 몇 년간 잦아진 폭우와 습도로 인해 진흙구조물과 불상 벽화 등이 고유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히마찰프라데시 주정부는 "기후변화뿐

만 아니라 인도 고고학조사단(the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이하 ASI)의 반복적인 복구 작업이 구조물을 해치고 있다"며 "그동안 ASI 차원의 타보사원 복구 및 보존 작업이 이뤄져왔지만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주정부는 최근 타보사원 주변 무차별적인 건축개발에 대해서도 경계의 입장을 보였다. 힌두스탄타임즈는 주정부가 "해발 3,050m 높이 타보사원 주위에 빠르게 증가하는 건설공사가 타보사원을 더욱 훼손시킬까 염려스럽다. 문화예술부장관이 나서 건설 활동을 규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히마찰프라데시 주정부는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을 동원해 훼손 위험을 벗



히말라야 아잔타 지방 11세기 불교유적 타보사원이 기후변화로 훼손위기에 놓여있다. 타보사원은 고지대 사막지역 라홀과 스피티 지역의 골짜기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9개의 법당, 4개 사리탑, 동굴 성지 등으로 구성된 거대 불교 유적지다.

어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주정부는 "중앙정부 문화예술부에 타보가 불교 유적 관광지로써 갖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 이상 허술한 보존 작업으로 타보사원을 방치해선 안 된다. 중앙정부에 타보사원훼손을 막기 위한 컨퍼

런스를 주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오프마차드리(Upma Chaudhary) 문화예술부장관 비서는 "우리는 타보사원 유적지를 보호할 방법을 의논하기 위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힌두스탄타임즈를 통해 전했다.

박아름 기자

세계종교의회, 미얀마 승려에 세계평화상

불교 언론 'lionsroar'은 6월 3일 세계종교의회(The Council of the World's Religions)가 노르웨이 노벨연구소에서 미얀마 불교지도자 세인디타(Seindita), 위투다(Withudda), 조티카(Zawtika)에게 세계평화상(World Harmony Awards)을 수여했다고 보도했다.

이맘 때릭 무자히드(Imam Malik Mujahid) 세계종교의회의 의장은 "이

승려들은 폭넓은 시각으로 로힝야족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세인디타는 "로힝야족을 해치는 자들에 맞서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로힝야족은 미얀마 이슬람 소수민족으로 2012년 종교분쟁이후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인신매매 조직이 로힝야족을 다수 살해 매장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박아름 기자

초판 22세의 스티디 셀러!!

10,000원 A5 / 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함이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어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경(한글/영어)